

쌍계 가득 흐른 차향과 음악

쌍계사, 제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개최



하동 쌍계사(주지 상훈)는 제 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의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초의 선사의 뜻을 기리는 다매전수회와 산사음악회,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축제 첫날인 5월 23일 오후 1시 쌍계사 팔영루에서 열린 입제식은 불가전통 현대예악공연 양을 시작으로 신라·고려·조선시대 다례 시연, 육조·진감·초의 선사에 바치는 108현다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야외특설 무대에서 국악인 김성녀(중앙대 국악대학장)씨가 진행하는 산사

음악제가 열렸다. 특히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의 범패 시연과 쌍계사 어린이 사물패가 국악공연을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음악제에서는 경기 민요 및 판소리, 구례줄풍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출연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한국전통음악이 이어졌다.

24일에는 팔영루에서 진감·초의 다매전수식이 열렸다. 초대 초의 선사부터 2대 서암선기, 3대 쌍수일환, 4대 응송영희, 5대 고산해원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다도의 근본맥을 전수하는 자리다. (055)883-1901

“왜곡된 차문화 빨리 바로 잡아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오늘날의 다도 문화는 일본에서 역수입된 것이지 우리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고유의 차문화가 흐트러지고 왜곡되고 있는 데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지.”

5월 23일 개막한 제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주관하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의 첫마디다. 사라져가는 불가 전통의 차문화의 진수를 잇기 위해 쌍계사에서는 매년 다매전수대법회를 열고 있다.

스님은 “불교는 종교를 넘어서 우리 생활, 즉 삶이고 한국의 전통문화 그 자체”라며 “이러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불교가 바로 선과 차와 음악으로 표현된다”면서 이번 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항상 차를 곁에 두고 마신다는 고산 스님은 “이번 축제를 통해 차문화와 음악 등의 불교문화가 바로 한국문화이고, 한국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임을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壬亂 호국영령 극락왕생을...”

태고종, 한산도서 천도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등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대제가 통영 한산도에서 열렸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23일 통영 트리아슬론 경기장 및 한산도 제승당에서 태고종 승정원장 남파 스님, 원로의장 일우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진의장 통영시장 등 사부대중 7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임진왜란 전몰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제’를 봉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통영시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영산대제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범어를 통해 “6월 호국의 달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고귀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면서 종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통영시 제승당에서 국가 안영 및 경제발전기원 전몰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제를 봉행한다”



태고종은 5월 23일 통영 제승당에서 ‘임진왜란 전몰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제’를 봉행했다.

며 “이런 공력으로 국운이 융성하고,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 개선과 나라의 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시 진의장 시장은 축사에서 “통영바다는 임진왜란을 겪어낸 바다”라며 “임진왜란 때 떼 버쳐

나라를 구한 선조들의 뜻을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2007년부터 매년 1회씩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국토순례 대장정을 통해 호국불교의 전통 문화를 국민에게 알리고, 불자들에게 금주 금연의 농수특산물을 구매하도록 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다.

통영=손효선 기자

여여선원 불교미술전문 갤러리 개관

선(禪)과 묵(墨) 깨달음의 향기, ‘선서화’ 전문 갤러리

부산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의 속원사업인 불교미술전시 공간 여여선(禪)갤러리가 5월 22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진구 양정2동에 위치한 부산 불교회관 1층에 문을 연 여여선갤러리는 선(禪)과 묵(墨)으로 깨달음을 화폭에 담아낸 ‘선서화’를 위주로 한 불교미술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개관식에 앞서 8층 대법당에서는 여여선갤러리 개관행사의 일환으로 ‘고승초정 필레이 대법회’가 봉행됐다. 필레이 대법회는 22일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을 시작으로 열흘간 오전 10시 8층 대법당에서 계속 된다. 28일 해인 스님(약천사 회주), 29일 무진장 스님(前 포교원장), 30일 태응 스님(통도사 주지), 31일 정여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정여 스님은 개식사에서 “스님의 수행원력으로 그려낸 선서화는 가식이나 꾸밈이 없어 우리의 마음을 맑고 순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며 “신도들에게 예술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줄 공간으로 문턱을 낮춰 누구나 쉽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은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과 각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50평 규모의 1층 전시실에서는 개막전 ‘제주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 선서화 작품전’이 한 달간 이어진다. (051)853-5486 박지원 기자

남해 화방사 ‘재가노인지원센터-회방동산’ 완공

총 사업비 12억 4000만원 · 5월 25일 개관

공리에 마쳤다.

‘회방동산’은 재가노인지원센터(1622.24㎡)로 방문 요양·목욕,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시설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야간 보호실, 단기 보호실, 입상동작 훈련실, 체력 단련실, 목욕탕, 물리치료실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을 현대식으로 꾸며 놓았다. 각 읍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이용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관식은 하동 쌍계사 주지 상훈 스님과 조실 고산 스님, 남해군수 한동환 군수대행, 남해군의회 김영태 의장 및 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055)863-2286 박지원 기자



강지연 기자

부산 철도정비청 직원 장애우와 함께 체육대회

부산시 3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우와 철도정비청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정당당 승부를 겨루고 진한 우정을 나누는 축제인 국군부산병원 잔디구장에서 한바탕 펼쳐졌다.

부산불교보현회 주최로 5월 18일 열린 ‘장애우와 함께하는 제11회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금정중학교 현체 교장, 부산불교보현회 회원을 비롯하여 천마재활원, 평화의 집, 성우원 장애우 100명과 광명사 어린이회 20명, 철도정비청 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장애우를 단순히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돕는 데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축구 훈련을 통해 운동을 유도하고 실제 재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불교보현회 안상익(57) 회장은 “한마음 체육대회와 같은 실제 재활훈련에 유용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회엄경’ 강좌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립)은 5월 20일부터 대웅전에서 ‘회엄경’ 강의를 열고 있다.

7월 23일까지 이어질 강의는 화엄사상 중 ‘법성계’, 실천수행을 위한 ‘보현행원품’으로 이뤄진다.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오경 스님이 강의를 맡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엄경> 강의가 될 전망이다.

오경 스님은 “김을 모르면서 고요함에만 머무는 오류를 배움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며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30분 또는 수요일 오후 7시~9시 30분 중 원하는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

한편 9월말 동안기 기간에 맞춰 ‘회엄경’ 강의가 2개 진행될 예정이다. (051)253-8687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051)632-4440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중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파와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도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무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

원불봉안, 탕화, 수미단, 닛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